

# '격렬' 서울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발표 이후 첫 주말인 지난달 31일 최대 규모의 촛불집회가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등 주말과 휴일 동안 전국은 촛불집회로 들쭉였다.

특히 서울에서의 시위는 비교적 평화적이었던 양상에서 벗어나 물대포와 경찰특공대가 동원되고, 격렬한 시위와 진압으로 100여명이 부상하고 220여명이 연행됐다. 이로 인해 시위대와 경찰간에는 '과잉진압'과 '과격시위' 공방이 벌어졌다. 광주 시민 수천명이 주말과 휴일 이틀동안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 모여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고시철폐 등을 주장했다.

◇경찰과 시위대 밤샘 대기=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는 10만여명(경찰추산 5만명)의 시민들이 참가했다. 쇠고기 관련 촛불집회 사상 최대 규모였다.

경찰은 이날 밤 11시45분께 시위대가 청와대 인근 서울 효자동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하자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쏘고 소화기를 분사했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직접 물을 분사한 것은 쇠고기 관련 촛불집회 이후 처음이다. 이날 시위대가 진입을 시도하자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쏘고 소화기를 분사했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직접 물을 분사한 것은 쇠고기 관련 촛불집회 이후 처음이다.

시위대는 이날 밤과 새벽 종합청사 뒤쪽과 청와대 입구, 동심자각과 내자동 쪽까지 진출해 도로를 잠거하고,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청와대 진입과 경복궁역 사거리 자하문 터널 입구를 봉쇄해 시위대의 청와대행을 저지했다.

일부 시위대는 광화문 봉쇄선을 뚫고 청와대에서 직선거리 1km 떨어진 곳까지 진입하기도 했다. 양측의 공방은 1일 오전까지 계속됐으며, 이 과정에서 시위대 220여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시위대는 경찰의 물대포 살포에 항의하면서 전경버스를 밀어 흔들고 경찰특공대를 그동안 인질극이나 테러 등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투입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광주에서도 최대규모 집회=지난달 31일 오후 6시에 광주역 광장에서는 광주전남비상사회회의 주최로 1천여명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가 열렸다.

광주역 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이들은 미국산 소 모형을 앞세우고 거리 행진을 펼쳤으며, 북구 중흥동 한나라당 광주시·전남도당 앞에서 물풍선 등을 던지며 현 정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지만, 경찰과의 물리적인 마찰은 없었다.

이들은 한나라당 당사와 대인 사거리를 지나 거리행진을 벌인 뒤 동구 금남로 삼복서점 앞에서 집결, 촛불 집회를 계속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는 광주에서의 촛불집회 사상 가장 많은 5천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광주에서는 휴일인 1일 밤에도 촛불집회가 열렸다.

# 강경한 경찰 물대포·특공대 '쇠고기 시위' 220여명 연행

입로와 경복궁역 사거리 자하문 터널 입구를 봉쇄해 시위대의 청와대행을 저지했다. 일부 시위대는 광화문 봉쇄선을 뚫고 청와대에서 직선거리 1km 떨어진 곳까지 진입하기도 했다. 양측의 공방은 1일 오전까지 계속됐으며, 이 과정에서 시위대 220여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시위대는 경찰의 물대포 살포에 항의하면서 전경버스를 밀어 흔들고 경찰특공대를 그동안 인질극이나 테러 등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투입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광주에서도 최대규모 집회=지난달 31일 오후 6시에 광주역 광장에서는 광주전남비상사회회의 주최로 1천여명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한나라당 당사와 대인 사거리를 지나 거리행진을 벌인 뒤 동구 금남로 삼복서점 앞에서 집결, 촛불 집회를 계속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는 광주에서의 촛불집회 사상 가장 많은 5천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광주에서는 휴일인 1일 밤에도 촛불집회가 열렸다.

◇광주에서도 최대규모 집회=지난달 31일 오후 6시에 광주역 광장에서는 광주전남비상사회회의 주최로 1천여명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가 열렸다.

# 제주 해역 4.2 규모 지진...문의 폭주

지난달 31일 밤 9시 59분께 제주도 서쪽 78km 해역에서 진도 4.2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날 지진으로 일부 지역의 고층 건물들이 5초 가량 흔들려 기상청에 지진 발생 여부를 문의하는 전화가 폭주했다. 진앙지는 북위 33.5도, 동경 126.69도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시 일도2동 이모(여·50) 씨는 "10층 아파트에 걸린 액자가 덜렁거리며 흔들렸다"고 말했다. 제주도 건설교통국에서는 "문의 전화는 많이 왔지만 아직까지 피해가 있다는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였는데 '뽕'하니 지축이 흔들리는 그림을 받았다"고 말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자동계분석 결과 진도 4.2 규모로 파악됐으며 제주 전역과 전남 완도 일대에서도 진동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며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현재까지 확인된 게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소방방재본부에서도 "문의 전화는 많이 왔지만 아직까지 피해가 있다는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가짜 보안 프로그램으로 28억 챙겨

## 32명 무더기 적발

정사적인 컴퓨터 파일을 악성코드에 진단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개인 컴퓨터에 내려받도록 한 뒤 치료비로 돈을 거액을 챙긴 업체 대표와 배포자 등 3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일 가짜 보안 프로그램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인터넷 보안업체 A사 대표 이모(28)씨 등 12개사 대표와 배포자 백모(40·여)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5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들이 조작한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을 인터넷 이용자들이 별 생각없이 내려받도록 유도한 뒤 정상파일을 악성코드로 진단해 치료비로 월 2천~5천원씩 모두 28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이 배포한 프로그램은 총 1천 140만명의 컴퓨터에 깔리게 됐다. 일부 업체들은 악성코드 치료시 최소 4개월의 의무사용 기간이 있다는 사실이나 자동연장결제가 된다는 점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산 쇠고기 위생조건 장관 고시 이후 첫 주말인 지난달 31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시민·학생 5천여명이 촛불을 들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번 집회는 지난달 초부터 광주지역에서 열린 촛불집회 가운데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 '평화' 광주

# "자제한 경찰 덕에 평화시위" 전국 네티즌들 칭송글 쇄도

'민중 경찰이란 말은 광주 경찰을 일컫는 말 같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수백명이 연행되고 부상하는 등 강경진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는 뜻밖에도 전국 네티즌들의 칭찬글이 이어지고 있어 화제다.

광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가 네티즌들의 칭찬 습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30일, 정부의 쇠고기 고시가 강행된 지난달 29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촛불집회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햇불 30여개를 꺼내 들고 거리행진을 펼쳤다. 평소 같은 경찰과의 마찰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광주경찰은 '시위대를 더 흥분시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교통경찰만 투입하고, 상황을 통제했다.

광주경찰의 이런 자제는 다음날에도 변하지 않았고, 5천여명이 참가한 지난달 31일 대규모 촛불집회에서도 시위대와 경찰간의 충돌은 없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전국의 네티즌들이 광주경찰청 홈페이지를 찾아 '빛고을 경찰은 다르다' '역시 광주시민, 광주경찰이다' 등의 칭찬 글을 남겼다. 1일 오후 6시 현재, 광주경찰청 홈페이지에는 1천여개의 칭찬 글이 올라왔고, 이는 지난해 7월 개칭한 광주경찰청 홈페이지 전체 글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다.

부산에 사는 사람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세상에 경찰을 칭찬할 줄이야'라며 '그동안 광주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반성하고 광주를 사랑할 것'이라고 글을 남겼다.

하지만 네티즌들이 '아청수 경찰청장이 경찰력 지원을 요청했지만, 광주경찰청장이 이를 거부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퍼 나르면서, 광주경찰은 난감한 입장이다. 광주경찰청 한 관계자는 "국민에게 칭찬받는 것은 나쁠 것이 없지만, 정부에서는 광주경찰이 제대로 통제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라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광주시 광산구 용동에 가공업체를 차려 놓고 중국산 쌀로 누룽지를 만든 뒤 '국내산 쌀 100%'라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속여 팔아 1천9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허위 표시한 누룽지의 생산 및 판매량이 크지 않고 이씨가 노인들에게 쌀 등을 지원해 온 점, 수익 중 상당액을 장애인 복지관에 기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했다"고 관설했다.

경찰은 박씨가 범행 직전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점으로 미뤄 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였으며 박씨는 대구북부경찰서에 자수했다.

# "평소 선행 감안, 형량 낮춰줍니다"

## 국산 둔갑 판매 40대 징유

광주지방 형사 1단독 유승룡 부장판사는 1일 중국산 쌀로 만든 누룽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48)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가공 음식품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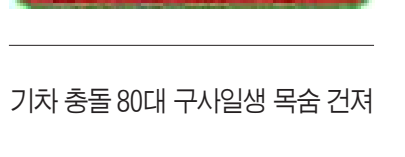
했지만, 허위 표시한 누룽지의 생산 및 판매량이 크지 않고 이씨가 노인들에게 쌀 등을 지원해 온 점, 수익 중 상당액을 장애인 복지관에 기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했다"고 관설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광주시 광산구 용동에 가공업체를 차려 놓고 중국산 쌀로 누룽지를 만든 뒤 '국내산 쌀 100%'라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속여 팔아 1천9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 단란주점 여주인 살해 여수경찰, 40대 구속

여수경찰서는 1일 단란주점 여주인 살해 혐의(살인)로 박모(41)씨에 대해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8일

# 나원침 김장독 (7521)



기차 충돌 80대 구사일생 목숨 건져 ○80세 노인이 운행 중인 열차와 부딪치고도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져 화제. ○31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황모(여·80)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50분께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인근 전라선 하행선에서 철길을 무단횡단하던 중 새마을호 1131호(기관차 임모·52)와 부딪혔다는 것. ○119구조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황씨는 "집에 가기 위해 길을 건너던 중 열차 소리가 들려 뒤로 돌려놨는데 오른쪽 어깨를 열차와 부딪쳤다"고 경찰에 진술.

○여수경찰 관계자는 "사고지점이 커브길이라서 열차가 서행했으며 황씨를 보고 기차가 급정거해 오른쪽에 골절상마 입었을 뿐 많이 다치지 않았다"며 안도의 한숨.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Advertisement for '에덴병원' (Eden Hospital) featuring a plate of food and text about patient satisfaction: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your satisfaction).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hospital services.